

책망과 사명 (마가복음 16:9-20)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신다고 하셨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현장에 귀신의 세력이 판을 친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순간부터 축복과 권세를 주셨음을 알고 예배드려야 한다. 예배중 아멘은 말씀에 순종이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예배중에 아멘은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다. 아멘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소리로 확신을 갖고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란다. 어느 때는 저만 혼자 아멘 하니까 이상하지만 저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리듬감이 없어서 항상 박자를 놓치곤 한다. 그래서 금요일날 찬양인도 하다 보면 반주자와 싱어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일단 찬양이 시작되면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중심으로 찬양을 한다. 그냥 제 성격이 아니라 시편 150:6절에 호효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의 찬양하라고 하였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데 시간표이다. 그 증거로 항상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우리는 듣고 있다. 지난주 강단은 전우후무한 역사라는 말씀이 담임목사님의 선교 현장에 그대로 성취됨을 믿는다. 담임목사님은 설교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선 것을 확인할 때 다시 한번 감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최고의 날로 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집에 돌아가서 묵상하고 기도로 선포하기 바란다.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신과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고 교회사에 있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으로 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지기 바란다. 개인이 말씀을 잡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시대에 주시는 말씀도 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만 산다. 그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우리의 근본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신 것이다.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성상위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천사들이 활동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생각속에 틈타는 귀신을 결박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 지금 믿고 기도할 때, 믿고 말씀을 받을 때, 다니엘에 역사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시 간에도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란다.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고 아멘할 때 담임목사님의 선교현장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 믿는다.

1. 꾸짖으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자녀들이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로 결론을 내린 주의 종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꾸짖음이라는 말씀은 약간 어색하기도 하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동안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하면 15-20절만 기억하고 있고 사명을 주신 내용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 전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이다.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대로 40일동안 부활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알려주셨다. 사람의 말을 듣지만 그것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확인해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잡은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어린아이도 잡아야 하고 청소년, 청년, 노인들도 잡아야 할 언약이다. 이것이 답이라고 강단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사역중 제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현장속에서 말씀과 그의 삶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자꾸 안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언약만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의 문제요, 사단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요 제사장, 왕이신 것이다. 그래서 이 답은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어른들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답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것을 묵상해봐야한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중 꾸짖으신 일이 몇 번 나온다. 마태복음 8장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유가 뭐냐면 감히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바람과 파도가 배를 뒤집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 이심을 선포하신 것이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연 환경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 바란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약간의 책망을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적느냐? 왜 두려워하고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 바람과 파도가 순종했다. 우리의 현장에도 이런 성취가 있을줄 믿는다. 마태복음 17:18에도 귀신을 구짖는 일, 누가복음도 열병을 꾸짖는 일이 나온다. 우리의 현장에도 귀신의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으라. 그들의 세력은 결박되어 지고 치유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능력이다. 누가복음 4장에는 귀신이 예수님에게 고백한다. 당신이 그리스도라 말할 때 닥치라고 했다. 귀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기 바란다.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꾸짖으시는 것은 불신앙, 귀신같은 것임을 알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직접 선포하신 것이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다. 모든 것을 원상 복귀하시는, 그 이상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신앙, 환경은 제대로 역사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것들을 향해 꾸짖으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훈련과 은혜를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꾸짖음을 들어야 하느냐? 우리는 생각이 좁거나 근시안적이라면 이런 꾸짖음을 빼질수가 있다. 빼질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이 확실히 넓히는 믿음이 회복되기 바란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내용은 불신앙을 향해 꾸짖으신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중에 힘을 얻어야 할 내용이다. 지금 제자들은 이제 3년 반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한다. 예수님은 끝까지 영적 전쟁을 하신 것이다. 남아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다. 남아 있는 제자들이 아직도 잘못된 체질이 있는 것을 아셨기에 꾸짖으신 것이다. 창세기 3, 6, 11장의 체질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은 항상 나중심이다. 내가 주인되려고 하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사탄이 이용한 것이다. 창세기 6장은 물질중심이다. 모든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 그것을 향해 꾸짖으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중심으로 향해 가고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으신 것이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창세기3, 6, 11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기 바란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복음이 아니라 나 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라면 끝이 가서는 공허만 남을 것이다. 오늘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무엇을 향해 하고 있는지 양심에 한번 물어봐야 한다. 왜 이렇게도 안 바뀌는 나 중심, 사람중심, 돈 중심이 안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체질을 향해 꾸짖고 계신 것이다. 복음 없이 잘못된 각인된 성공의 개념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더 잘해야 하고 더 확실히 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하는 성공중심의 체질을 꾸짖으시는 것이다. 여기서 혹자는 말하기를 그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나?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아신다. 그 성공이 과연 무엇을 위해 하느냐는 것이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세계복음화는 나 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는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그 체질을 가지고 있는 나는 참된 응답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꾸짖고 계신 것이다.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누리기 위해

언약기도를 매일 매일 쓰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란다. 오늘 예수님의 꾸짖음은 내 속에 잘못 뿌리내린 체질을 향해 한 것이므로 그것이 오늘 완전히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새것을 주신다. 새생명 주셨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새 생명이 다. 이 생명을 가져야만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가서 새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새생명 얻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 새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있는 것이다. 오늘 혹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지금 조용히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란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사람이나 존재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성가대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지난 주에 주신 은혜, 그것을 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신 은혜는 무한하다. 옛날의 험은혜가 아니라 새은혜이다. 그리고 이 언약 붙잡으면 새 능력주신다. 이 능력이 우리 현장에서 나타날줄 믿는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능력을 받아야만 자신과 현상과 미래를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

2. 사명과 축복

우리에게 방금 전에 꾸짖고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사명을 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절대 사명이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수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 이 사명의 이면계약은 축복이다. 사명을 감당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축복이 따라온다. 승리와 정복이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이 사명의 이면계약이다. 하나님인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있는 잘못 각인된 뿌리 체질을 바꾸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알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미션을 주신 것은 잘못 각인된 체질이 아니라 성령충만 받아서 그 능력으로 해야 할 일이 이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삶이 되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히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다. 저주와 재앙과 지옥가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주신 그 답은 완전한 답이다.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답이다. 매일매일 전무후무한 역사 가운데 살게 하실 영적 시스템을 주셨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매우 중요하다. 바로 온 땅과 온 천하, 모든 민족 땅 끝까지 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바로 그것이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때에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고달파 하고 고난 받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육신의 질병속에 있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치유하는 증인으로 설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육신이 약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그 사실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병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바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된다. 재앙에서 해방된다. 그런 비밀을 인생속에서 확인하고 체험하기 바란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완전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실것이라는 언약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5-20절의 말씀이다. 우리는 온천하를 치유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이다. 방향은 땅 끝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한 일이다.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라. 개인의 힘과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낙심하고 교회까지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 시간 걸리고 늦더라도 계속 성령충만이 무엇인지 말씀 성취가 무엇인지,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이해하신 후에 현장에 나가기 바란다. 그 뒤에 237 나라요, 5천 종족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충만하지 않았는데, 마음과 생각이 앞서면 마음이 들뜨게 되고 삶이 불균형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할수 있느냐? 답은 예배이다. 항상 예배에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란다.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도 예수 믿은지 30년 되었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겠는가? 그 때마다 예배를 대충 드릴때도 있고 좋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현상과 미래를 보는 눈을 계속 열어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 제자로, 일꾼으로 이끌어가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예배 먼저 성공하기를 축원한다.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그 중에 한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우리는 오늘 처음 나온 예배와 내일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기 바란다. 그러면 말씀이 달라지고 언약이 달라질 것이다. 그제서야 우리를 통해서 237과 5천종족이 이해되고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16절의 말씀을 기억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받는다. 고백해야 구원 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믿음, 곧 영접과 같은 의미이다. 예수님을 항상 영접하고 믿기 바란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다. 정죄가 무엇인가? 심판이다. 지옥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나와 상관없다면 모르겠지만 만일 내 가족이, 친족이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겠는가?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기를 바란다.

17절부터는 믿는 우리에게 5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 받는다고 하셨다. 믿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대상자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때부터 주시는 5가지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의 현상속에 귀신을 활동이 안보이면 답답할 것이다. 도대체 저사람은 왜 그렇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한 인생이 된다.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100% 귀신이다. 할로윈 데이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를 속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표적 첫 번째가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왜 주셨냐는 것이다.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안든다고 귀신이라고 저주하지는 말라. 자식이 말 안듣는다고 귀신이 떠나가라 하면 아들 집 나간다. 영적 싸움이므로 속으로 하면 된다. 아니면 글로 하면 된다. 언약기도를 하라. 개인과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기 바란다. 쫓아내는 단계가 넘어서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오지도 못한다. 우리 집 감아지를 너무 심하게 때렸더니 이제 손만 올리면 오줌을 싸기도 하였다. 지금은 아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모습임을 기억하라. 확실히 누리고 선포하면 귀신은 도망간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였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성령충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말이 나온다. 전에 처음 미국에서 영어도 안되고 스페니쉬도 안되니까 전도를 하고 싶어서 내가 가진 방언이 스페니쉬인가 하고 가서 한적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집중을 시켜놓고 내 말을 들어보라고 하고 방언을 막 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듣길래 되는가 보다 했더니 미쳤냐고 하면서 그냥 갔다. 그래서 스페니쉬가 아님을 확인했다. 하나님만 알아듣는 말씀이다.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 사도바울은 통역자가 있을 때 방언을 사용하라고 권면했다. 그런데 사실은 새 방언은 다른 의미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새 방언이다. 그리스도로 새생명 얻고 새능력 얻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새방언이다.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라고 하셨다.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살았다. 어떤 것도 전도자를 해할 수 없다. 네 번째로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이다. 이 독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다. 여러분은 다른 것을 들어도 죽지 않는 영적 힘을 가졌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찾아갈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앉아 계시다. 전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다.